수신: ㈜삼보판지 대표이사 류진호 귀하

발신: ㈜ 삼보판지 소액주주연대 대표 박 찬

제목: ㈜삼보판지의 주주 환원율 제고를 위한 장단기 계획 공개 요청

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보판지 소액주주연대 대표 박 찬입니다.

지난 2월 18일 대표님에게 1차 서한을 보내 우리 소액주주연대의 입장과 주주환원과 관련 건의사항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개적인 회사의 변화나 답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관변경을 통한 소액주주의 발언과 참여를 원천 봉쇄 하려는 의도에 실망하여, 다시 한번 대표님에게 현 상황과 앞으로의 소액주주연대의 활동 방향을 알려 드리고 회사와의 소통을 위해 이 글을 올리며 향후 주주환원을 위한 회사의 구체적인 장단기 계획을 3월 11일까지는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최근 국가차원의 Value Up 프로그램 도입과 아세아제지의 주주환원 제고 발표 및 실천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의 환경은 변화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주주환원 제고를 중시하는 기업의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동종기업으로서 주주환원에 인색하던 아세아제지의 변화는 주목할 만 합니다. 금번 개최될 아세아제지의 주총에서는 주당 1,920원(기 중간배당 500원 별도) 의 배당과 1/5 액면분할을 결의예정입니다. 그리고 200억원의 23년 기 매입 자사주(100% 소각예정)를 감안하면 연결 기준 순익의 50%에 달하는 주주 환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연초 추가적인 200억원의 자사주 매입결의(소각예정)후 매입이 진행 중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주주 환원 율은 29%에 불과하며, 이 환원 율은 미국 92%,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68%, 개발도상국 38%, 심지어 중국의 32%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5%도 되지 않는 삼보판지의 주주 환원 율은 투자를 위한 준비 등 어떤 핑계로도 수긍할 수 없는 수치임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소액주주연대가 이번 정기주총을 앞두고 제출한 주주제안에서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은 주주 환원율로 계산하면 약 30%이며, 최소한 국내 주식시장의 평균은 가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회사의 시가 배당률을 보면 1.5%(현 시가대비 전년 배당 액으로 계산)로 은행이자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배당에, 장기투자를 해 온 우리 소액주주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더하여 지난 2월 대표님과의 면담 시 천억에 가까운 보유 현금성 자산에 대

한 질의 시 향후 투자를 위한 준비라 설명하셨으나 과거 707억원의 기회 손익까지 2015-17년 당시 대표의 개인회사로 옮기는 것을 목격한 우리 소액주주들은 이미 대표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삼보판지를 믿고, 그에 따라 소중한 자금을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삼보판지의 소액주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이는 소액주주연대의 우호지분 증가 속도를 통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주주연대의 우호지분은 연대구성 2개월만에 11.4%의 지분이 결집될 정도이고 주주 분들께서 주주연대에 많은 금전적 후원을 할 정도로 분노함과 동시에 한 편으로 회사의 변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주명부를 통해서도 인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삼보판지의 소액주주들은 단기투자차익을 노리는 분들이 아니고 이미 수년간 장기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계신 삼보판지의 가족과 같은 분들이며 주주로서 회사의 성장과 삼보판지가 업계정상의 위치에 오르기를 기대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액주주연대는 대표님에게 앞으로의 장단기적인 그리고 예측 가능한 주주 환원 계획에 대한 공개를 요청 드리며 또 그럴 자격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회사가 팬데믹과 택배산업 확대라는 긍정적인 시장환경 변화를 통해 엄청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재원을 핑계로 터무니없는 주주환원을 고집하고, 회사의 자산을 개인 재산으로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정관변경을 통해 소액주주의 발언과 참여의 기회조차 빼앗으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한, 이를 저지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저항과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회사측의 소액주주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는 상황을 갈수록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5% 미만의 주주 환원 율과 예측조차 되지 않는 주주환원에 대한 제고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주인으로서 우리 소액주주연대는 삼보판지를 지속경영 가능하며 성장위주의 바람직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활동을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소액주주연대의 우호지분을 20%까지 확대하여 현 감사의 해임과 소액주주를 위한 신규감사의 선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 2천주 이상 보유주주들에게는 소액주주연대와의 동참을 권유하는 우편물이 발송되었고 많은 분들이 공감과 동참을 약속하였습니다. 조만간 500주 이상 보유주주들에게도 주주연대의 안내장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2. K Discount의 대표적인 사례로서의 삼보판지의 현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중파방송을 포함 모든 신문 등 미디어 그리고 국민 신문고 등에 삼보판지의 사례를 들어 널리 알리고 이의 변혁을 촉구하는 여론을 형성할 것입니다.
3. 아세아 제지의 사례와 같이 과거의 담합과징금 부과 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4. 부천 토지 헐값매각과 그 개발이익의 편취에 대한 배임과 증여세 탈루에 대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해당 형사 건으로 고소되어 있는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54403호 건에 대해 주주연대 및 그 가족 이천 명의 이름으로 개별 탄원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실행방안들은 이미 집행부의 합의로 순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결국 기업 이미지 및 향후 경영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행하여야만 하는 소액주주연대의 입장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대표님과 임원들의 합리적인 주주환원에 대한 결단과 공개를 기대합니다. 특히 위에 언급된 사항들은 이미 실행단계에 있기에 대표님의 경영상의 판단과 의사결정이 늦어질수록 상황은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는 사안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우리 소액주주연대는 단 두 달 만에 11.4%의 지분이 모여 조직화 및 사측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의 준비까지 마칠 정도로 회사 측의 무반응에 분노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시간이 흐를수록 결집과 저항의 강도는 가속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내의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이 조기에 진화되고 대표님과 임원진, 그리고 회사의 주주 모두가 경쟁사 대비 우위에 서는 경영과 투자전략수립, 그리고 회사의 성장전략에 매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기에 형성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3월4일

㈜삼보판지 소액주주연대 대표 박 찬 배상

champ8706@yahoo.com

(010-4084-3376)